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이번 연회에서 최종적으로 차터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도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입니다.

3. 임원회

오늘 예배후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미국교회 미팅을 위한 임시 임원회의이고 7월24일 주일에 정기임원회의가 있습니다.

4. 연합속회 안내

7월과 8월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7월은 7월10일 주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은 장소가 정해지면 야외모임으로 진행합니다.

5. 2016년 연회안내

- 1) 지금까지 칼-네바다 연회 감독이었던 워너브라운 감독이 은퇴하였습니다
- 2) 8월에 있을 서부지역총회에서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는데, 샌프란시스코 클라이드 메모리얼교회에 카렌 올리비아토 목사가 연회감독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 3) 목사안수식과, 한인교회치리, 그밖에 목회자 파송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메모리얼교회와 웨슬리교회가 지방회 모범교회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6. 담임목사 휴가

오늘부터 다음주 한주간 담임목사 휴가입니다. (6월26일-7월2일)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6월26일	홍윤기 집사	임정원 집사	차석준 김형기 윤문섭
07월03일	임동재 권사	구경숙 집사	홍윤기 임동재 구자홍
07월10일	임정원 집사	임동재 권사	안광빈 최승희 김현덕
07월17일	김경호 집사	차석준 집사	김규현 최성보 김응열
7월안내	안미나 한순옥	7월촛불점화	안광빈 안미나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감리교회와 연회

연회는 1년동안 교회 사역을 나누고, 간증하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리교회는 형식과 절차와 상관없이 속회를 통해 훈련된 평신도들이 성경과 복음을 들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교단과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교회가 네바다 사막에 까지 세워진 이유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속회회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을 이끌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사람들이 모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런 속회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사역을 나누고, 간증하는 모임이 연회입니다.

지난주간 연회에 참석하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조직화된 연회를 보았습니다. 안수식이 필요했고, 복잡한 일을 치리하기 위해서는 법도 필요했을 것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 필요한 조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감리교회 조직은 미국방부가 군대를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으로 활용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조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조직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지만, 이전에 처음 연회의 열정과 사역자들의 헌신은 그 때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전체를 끌고가기에는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조직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워낙 빨리 변하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것에 반응하기 위해 조직이 전체가 모여야만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것입니다. 오히려 잘 마련된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 감리교회의 연회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는 특별하면서도 사뭇다른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더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에 갖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회는 은혜를 나누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를 서로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이런 복잡함 속에서 감리교회 연회안에 남겨진 훌륭한 전통은 이것입니다. 파송을 받는 목회자와 이것을 중보하는 분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우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처음 연회에 다녀온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꼭 다음에는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후레즈노한인
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의 제자되는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016년 6월26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44장 (통56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홍윤기 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임정원 집사	행 2:36-47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성령의 교회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321장(통351장)
❖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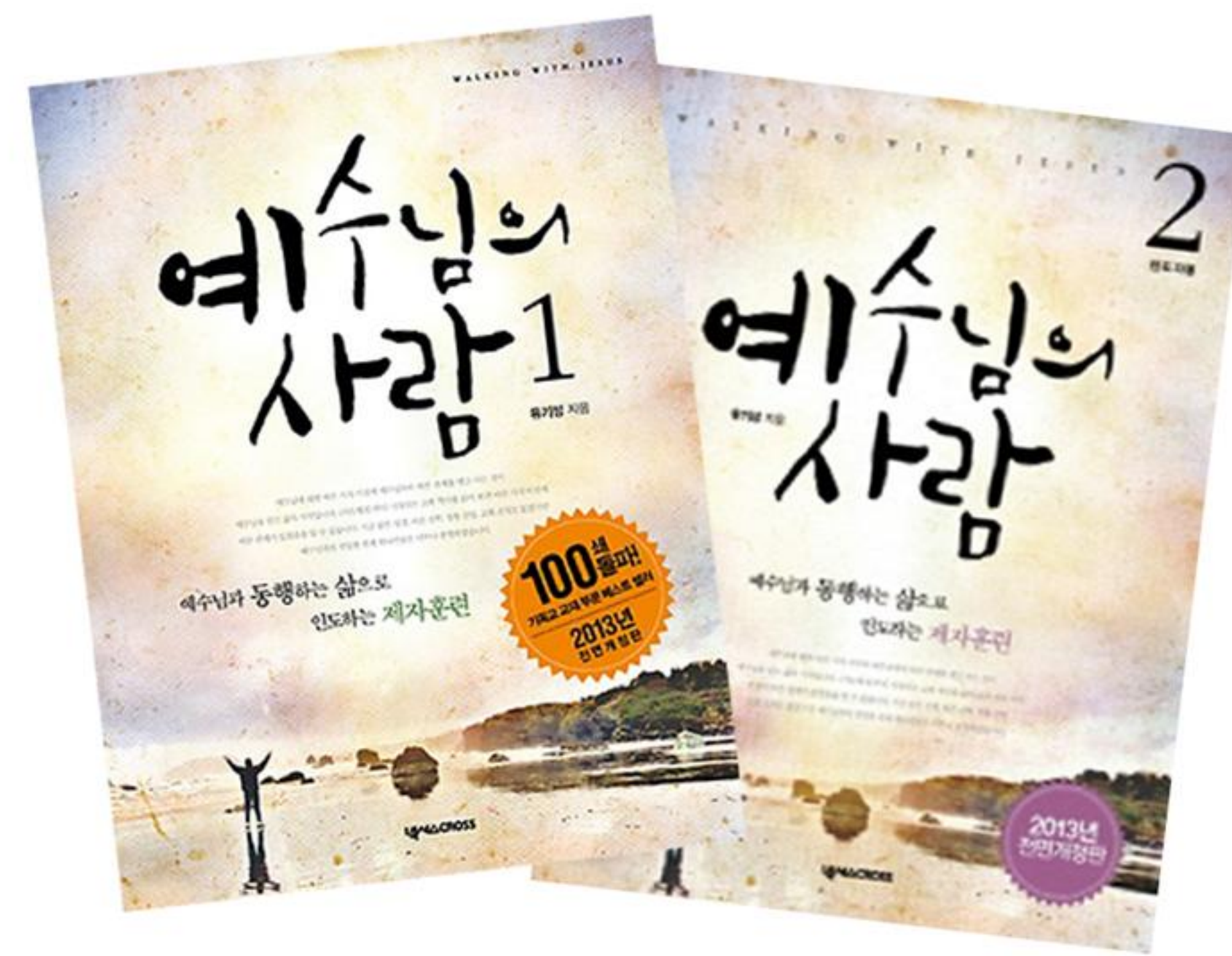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김보흥집사와 변영근 성도를 위해
8. 이수경 집사 시어머니를 위해
9. 최성보 집사 장인, 최주리아 아버지 심장수술을 회복을 위해

7월생일자

김현숙 집사(7/5) 켈리박 (7/22) 이명희 (7/24) 한운수(7/14) 홍윤기(7/28)
브리아나 (7/7), 김경호 집 김이루(7/5)

❖ 함께 나눔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정윤희 짐 토마스 김형태 김숙진 박순옥 서병수 엄선영 이수경 임수호 차석준 차경미 최승희 최미란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김경호 이용숙 임동재 임정원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홍윤기 김의숙		
속회헌금	1속	합계	\$1,367.00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7시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1부: 오전08시30분 2부: 오후12시30분	교회력설교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